

크레이그 키너 박사, 사도행전, 강의 7, 사도행전 1-2장

© 2024 크레이그 키너와 테드 힐데브란트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7회기,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증거의 능력에 대해 가르칩니다.

그들은 사도행전의 나머지 부분에서 매우 중요한 타문화 간 증거에 대한 강조와 권한 부여를 소개합니다. 사도행전 1.8장이 이것의 핵심이다. 모든 고대 작품이 처음에 논제문이나 그와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때로는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그러한 일을 하는 작품 중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장과 2장은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사이의 중심점인 누가복음 24장을 요약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매우 전략적인 부분이며 누가복음의 주요 강조점, 즉 성령의 능력 부여, 예수의 사명이 추종자들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을 보여주고 강조합니다. 분명히, 세상을 위해 죽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의 사명이 아니라, 세상에 은혜를 베풀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그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장과 2장에서 그 사실을 봅니다.

1장 4절부터 8절까지에서 우리는 오순절의 약속을 읽습니다. 1:12-26에서 우리는 기도와 리더십을 포함하여 오순절을 준비하는 것에 대해 읽습니다. 2.1-4에는 오순절의 증거가 있다.

2:5-12, 오순절의 민족. 2:17-21, 오순절 예언. 2:22-40, 오순절 설교.

그리고 2:41-47, 오순절의 목적. 우선 오순절의 약속을 살펴보면서 다른 것보다 이 부분을 더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오순절의 약속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서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지 나가서 스스로 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성령의 능력을 기다리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능력 없이는 그리스도의 사명을 성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 면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하라고 부르시는 일은 대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힘 대신 그분의 힘에 의지하는 법을 배웁니다.

제자들은 6절에서 분명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은 왕국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영에 관해 이야기해 왔습니다.

영이 부어지는 일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회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3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아마도 이사야서 61장이나 59장에 있을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장, 39장에도 있습니다.

요엘서 2장 등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왕국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분명한 질문을 합니다. 지금이 바로 당신께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하실 때입니까? 그러자 예수께서는 때와 시기는 아직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고 대답하셨다. 왕국의 완성이 올 것이다(7절). 그러나 이제(8절) 성령을 주시리니 이는 세상을 미리 예비하며 증인들을 미리 예비하게 하려 하심이라.

영은 마지막 때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내세의 삶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것은 제자들에게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보라고 가리키며 말하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 세상이 교회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천국이 어떤 모습일지, 새 세상이 어떤 모습일지 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교회가 교회의 장자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 곧 다가올 시대를 미리 맛볼 수 있는 영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신약성서 전반에 걸쳐 '이미'가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왕이 이미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찾고 있는데 그분은 이미 한 번 오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 우리는 그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예수 안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전파할 수 있었느니라(행 4:4) 이는 예수께서 첫 열매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살아나셨음이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말합니다. 우리는 다른 곳에서도 영과의 연관성을 봅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을 맛보고,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1:4절, 우리는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받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은 이 시대에 순응하지 말고 실제로 그와 관련하여 영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본문이다. 우리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얻었습니다(롬 8:23). 계약금이 있습니다.

이는 그리스 단어인 아레본(ahrebon)으로 비즈니스 문서에 사용되며 실제 첫 번째 할부, 첫 번째 지불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미래의 상속의 시작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고린도후서 5장에도 우리는 미래의 기업에 대한 계약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0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눈은 보지 못하고 귀는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라 그의 정신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영으로 다가올 세상을 미리 맛볼 수 있고, 세상은 우리를 보고 다가올 세상이 어떤 것인지, 다가올 세상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견본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앞서 누가복음, 복음, 사도행전에서 능력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치유와 귀신을 쫓아내는 것과 가장 자주 연관되어 있다는 서문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으로 일부 사람들이 파워 전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능력으로 뒷받침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표적과 기사를 보고 사람들의 관심을 이끈다. 이제 여러분은 제가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는 없는 다양한 지점에서 계속해서 자격을 얻는다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에 있다면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냥 기뻐하세요.

그러나 그 힘은 정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구약성서는 종종 영을 선지자, 예언적 말, 때로는 다른 종류의 예언적 행동과 연관시켰습니다. 초기 유대교는 특히 그러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장 많이 발전한 것이었습니다. 영의 다른 연결 중 일부는 다른 곳에서도 나타납니다. 특히 사해 두루마리와 희년에서는 아마도 에세네파와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출처에서는 영을 정화와 많이 연관시키지만 예언적 권한 부여도 언급합니다. 그리고 곳곳의 다른 유대인 자료에서는 예언적 권한과 관련하여 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영의 권능을 받으리라 말씀하시는 것은 마치 제자들을 보시고 에스겔과 같이 되리라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은 예레미야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이사야처럼 될 것입니다. 당신은 홀다, 미리암, 드보라, 다니엘과 같을 것입니다.

우리는 다양한 종류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구약성서에는 엘리야라는 다양한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옛날 선지자들에게 주어졌던 것과 동일한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져서 세상에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땅 끝까지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어는 이사야를 반영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이 이 사명을 주면서 이사야서 앞부분의 언어를 사용하여 위에서 오는 능력에 대해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이 성경을 반영한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경을 근거로 이것을 가르치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람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 사도행전 1장의 성경에 근거한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요점을 반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초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이사야 44장 8절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런데 그들은 누구의 증인 입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신성하시다는 주제와 매우 명확하게 들어맞습니다.

물론 누가복음의 아주 초기 부분에 그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와서 설교할 때에도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하여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우리 하나님의 길을 예비하라. 여호와의 길을 참고하여 여호와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이어서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육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예수가 신성하다는 것을 포함하여 매우 분명한 기독교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명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말한 이 사명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영을 받으면 증인이 되리라. 그리고 이사야서의 그 부분에서도 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땅끝까지 이르리라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글쎄, 그것은 여러 구절을 반영할 수 있지만 특히 그것은 땅 끝까지의 사명, 땅 끝까지의 빛에 대해 이야기하는 이사야 49장 6절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실제로 사도행전 13장 47절에 인용되어 바울 자신의 사역에 적용되었습니다. 12시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예수님은 여기서 11명에게가 아니라 12명에게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다는 죽었으나 11명에게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24장 끝부분을 보면 11명과 그들과 함께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큼니다. 직접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특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11명, 즉 유다를 대신한 사람도 12명 가운데 한 사람이 됩니다.

그들은 원래 이 일의 증인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바울도 증인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스테반을 증인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12제자에게만 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영을 부어주실 예정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8절과 39절에서 우리가 여기 이 문맥에서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여 영의 은사를 받고 약속된 것을 받는 등의 내용을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를 소개합니다. 복음은 전파되었고 사도행전 전체에 걸쳐 요약된 진술을 통해 이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그 수를 247명씩 더해 가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퍼져 67명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수가 늘어나서 931명이었습니다.

1224년, 말씀은 계속해서 증가했고, 1605년에도 교회 수는 날로 늘어났습니다. 1920년에는 말씀이 퍼지고 성장했습니다. 2831년.

그는 방해받지 않고 설교했습니다. 이는 예루살렘, 계급 경계를 넘어, 유대와 갈릴리, 더 나아가 유대, 소아시아 남부, 도시 에베소, 로마 등에서 교회의 성장을 반영합니다. 좋은 소식이 어떻게 전해지는지 보여주는 것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과 8절에는 훨씬 더 명확한 개요가 있지만 매우 대략적인 개요입니다. 자세한 개요를 의도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1장과 8절은 복음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일종의 요약 설명을 제공합니다. 예루살렘(1장부터 7장), 유대와 사마리아(8장과 9장), 그리고 땅 끝까지, 그 너머 모든 곳, 성지 너머(10장부터 28장)는 특히 디아스포라 선교가 지배하는 곳입니다.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이다.

8장에 이미 예시된 10장과 11장의 이방인, 이 책의 신학적 중심인 13장과 14장의 키프로스나 남부 터키, 많은 사람들이 15장, 아시아와 그리스, 16장부터 20장,

그리고 예루살렘을 거쳐 로마로 가는 길을 고려합니다.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누가복음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시작하고 끝난다는 점입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마지막 부분에 성전에서 환상을 본 스가랴와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는 제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서 누가복음이 중단된 부분을 이어 로마로 이동합니다. 여기에는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누가복음은 유산에서 선교로 옮겨간다고 말할 수 있다.

먼저 모든 것이 유산에 기반을 두고 있는지 확인하여 복음이 앞으로 나아갈 곳이 예측된 곳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것은 이미 그 이전의 이스라엘 역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버리지 않고, 유산을 버리지 않은 채 그것을 넘어선 선교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제, 제국에 있는 누가의 청중에게 제국의 중심부에 도달하는 것은 사도행전의 중요한 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고 합니다.

땅의 끝은 어디입니까? 글쎄, 그 당시에는 지구의 끝이라고 표시된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지구의 서쪽 끝은 스페인이고 강 바다는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스페인보다 더 서쪽에 있는 것들을 알고 있었고 심지어 강 바다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서쪽에 있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파르티아, 인도, 중국이 있었습니다. 중국과 무역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장소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땅끝에는 인도나 중국 같은 곳도 포함될 것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이미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북쪽에는 부분적으로 러시아가 있는 스키타이, 독일, 영국과 같은 곳이 있습니다. 남쪽으로는 이집트 남쪽의 아프리카를 알고 있었습니다.

탄자니아까지 남쪽으로 무역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멀리 남쪽에서 카이사르의 흉상을 발견했습니다. 누비아 왕국인 메로에(Meroe)는 29절 8장에 등장하는데, 이 왕국은 로마가 알고 있던 이집트 남부의 매우 강력한 왕국이었고 로마는 정복할 수 없었고 무역 관계를 맺고 평화 조약을 맺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로마 너머 땅 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북미와 남미, 중미에 대해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내가 살고 있는 반구에 대해서는 몰랐지만 그것이 로마 너머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로마는 누가의 청중에게 중요하지만, 로마는 땅 끝을 예표하는 곳이다.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아프리카 관리의 개종과 마찬가지로 복음이 땅 남쪽 끝까지 전해질 것을 예표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천하 각 나라의 유대인들이 나오는 것처럼, 그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가는 것을 예시합니다.

그래서 누가는 미래의 약속을 계속 상기시켜 줍니다. 임무는 개방형입니다. 오늘도 계속됩니다.

사도행전은 끝이 열려 있습니다. 미래를 향해 열립니다. 누가복음은 두 권밖에 없지만 역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에는 또 다른 성경적 환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글썄, 헬라어는 사람들이 하늘로 올라가는 이야기를 말했고, 로마인들은 그랬고, 유대인들은 그랬습니다. 하지만 구약에는 유대인들이 이러한 다른 것들에 노출되기 전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누가복음의 청중들에게 가장 친숙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정경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성경에 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정기적으로 들었을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서 그가 그렇게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그의 영혼의 두 배를 엘리사에게 남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장 9절부터 11절까지 하늘로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에게 자신에게 능력을 준 동일한 영을 약속하셨습니다(행 10:38, 누가복음 4:18).

예수에게 기름을 부으신 동일한 영이 지금도 동일한 영이십니다 누가 교회가 우리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줄 것인가?

그리고 엘리사가 엘리사의 사명을 수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세상의 죄를 위해 죽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치유와 복지를 가져오고 왕국의 좋은 소식을 전파하는 측면에서 영이 예수에게 권한을 부여한 종류의 일을 위해서입니다. 또한 오순절 준비에 관한 섹션도 있습니다.

나는 이 부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을 것이지만 그들은 스캔들을 겪었기 때문에 리더십 구조를 다시 확립해야 합니다. 리더 중 한 명이 떨어져 나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마치 다윗이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었지만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재료를 비축해 두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아직 갈 때가 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회복을 이루실 것이라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12번째 제자를 임명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필요한 숫자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또한 14절에서 그들은 함께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함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들은 성령이 부어지기 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론에서 본 것처럼 Luke x 전반에 걸쳐 흐르는 주제입니다. 이제 여러분 중 일부는 서론을 원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바로 들어가고 싶어서 소개를 건너뛰었습니다. 그것이 당신이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 괜찮습니다.

그러나 간단히 말해서 이것은 누가복음 10장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인데, 특히 성령 강림 전의 기도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에 자주 등장하는 주제입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기도하실 때 영이 예수에게 임했습니다. 또한 그들이 여기서 기도하게 하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영이 부어집니다.

사도행전 4장에서 그들은 선교를 계속하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해졌습니다. 사도행전 8장에서는 사마리아인들이 성령을 받게 해 달라고 기도했는데,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셨습니다. 기도는 또한 사도행전 9장과 10장에서 성령의 부으심보다 먼저 일어난다. 비록 이 경우 누가가 그 연관성을 명백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두 경우 모두에서 언급되어 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는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고, 고넬료도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일어나자 오히려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특별히 성령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대략 4,000페이지에 달하는 사도행전 주석을 쓰면서 발견한 모든 것 중에서 아마도 오늘날 교회에 가장 중요한 것, 또는 적어도 오늘날 교회의 많은 부분이 이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도행전을 통해 그의 영을 부어 주셨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려면 정신이 필요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을 더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계산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전제 조건은 아닐 수도 있지만, 성령을 부어주기 전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준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것을 보고 싶다면, 그분께 구하십시오. 왜냐하면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에 너희가 좋은 것을 구하면 아버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라. 그러나 누가는 특히 좋은 선물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빵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돌을 주시지 않습니다. 하물며 너희가 악하여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에게 영을 부어달라고 그분께 간구하십시오.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지시하신 대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시도록 전 세계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분께 간구합니다.

오순절을 맞아 많은 순례자들이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는 전략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2장 2절부터 4절까지는 기도로 구성되기 전의 전체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부분에서 일찍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장과 1절은 모두 한곳에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요? 글썄, 아마도 그들은 아직도 기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오고 갔을지 모르지만, 기도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2장 2절부터 4절까지에서 우리는 성령이 부어지는 오순절의 증거를 봅니다. 2장과 2절에는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들리는데, 그것은 신현을 불러일으킵니다.

종종 구약성서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때 바람소리와 같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또한 에스겔 37장에서는 부활 생명, 마지막 부활 생명과 연관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영인 루아흐를 바람처럼 보내시어 그의 백성의 마른 뼈를 소생시키고 그의 백성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당신은 바람이 있습니다. 2장 3절에도 불이 있습니다. 불은 다시 신현을 불러일으키는데, 종종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불처럼 오십니다.

그러나 또한 이사야 66장 등에서도와 같이 불은 연관되어 있으며, 불은 종말론적 심판, 즉 1세기 해석자들에 의해 종말의 심판으로 이해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반복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것들은 하나님이 나타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들은 또한 미래를 미리 맛보고, 종말론을 미리 맛보는 것을 보여 주지만, 사도행전에서 이어지는 성령의 부어주심에서는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반복될 수 없다는 말은 아닙니다. 과거에 영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심지어 불도 티모르, 인도네시아의 서티모르 부흥이 시작될 때 성령이 부어졌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20세기 초반, 즉 1904년쯤 인도에 있는 판디타 라마바이의 고아원에서 성령이 부어지면서 불이 붙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 주어지는 세 번째 표적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 것은 누가복음 10장 46절과 19장 6절에서 처음으로 반복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중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한 다문화 청중에게 촉매제를 제공하기 때문에 분명히 중요합니다. . 그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이 경우 문화 전반에 걸쳐 사람들의 관심을 얻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지역 출신의 유대인들은 부차적인 방식으로 다양한 문화의 일부입니다.

또한 이 소리가 들렸을 때 사람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베드로의 메시지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요엘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겠다”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글썄요, 그것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주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그게 어때요? 베드로는 2장 17절과 2장 18절에서 이것을 요엘이 말한 예언의 영으로 해석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우리에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영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은 어떻게 서로 관련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증거에 관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영에 감동된 영감받은 말씀입니다. 그것은 2.17과 2.18에 해당하는 예언의 말씀이지만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대부분 지역에도 적용됩니다. 다문화 연설입니다.

오순절 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보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모든 문화적 장벽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계신 더 큰 표징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예언의 영으로 능력을 주는 목적임을 그가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더 큰 방법이 있겠는가? 너희가 즐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에게 예언의 영을 권하여 땅 끝까지

보내리라. 그것이 바로 영을 부어주시는 목적입니다. 이제 이것에 대한 논의의 지난 세기 정도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은 거룩함과 선교, 치유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초교파적인 운동이었습니다. 그 중 상당수는 감리교에서 나왔지만 이 시점에서는 장로교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그것은 여러 교회에 퍼졌습니다.

거룩함, 사명, 치유를 강조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성령세례를 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사도행전 1:4-5에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다른 일을 다루지 않고 간단히 이 문제를 다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전통적으로 개혁교회는 성령세례가 회심을 의미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들어가는 방식으로 사용된 것 같습니다.

전통적으로 웨슬리안과 성결 지향 교회, 오순절 교회는 이것이 회심 후에 일어나는 어떤 일에 적용된다고 말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도행전에서 회심한 후에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을 지적했습니다. 이 내용은 세례 요한이 예언한 것과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세례 요한은 마태복음 3장과 누가복음 3장에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것에 대해 말했습니다. 문맥을 보면 그 내용이 대조됩니다. 아마도 사람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거나 불로 세례를 받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룰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살펴보면 비록 우리 모두가 거룩함의 중요성을 확인하지만 불은 분명히 거룩함의 세례가 아닙니다. 그러나 불 세례를 받는 것에 관해 말할 때는 문맥을 직접 살펴보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문맥은 심판의 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마태복음에는 바로 앞 구절과 바로 뒤 구절이 모두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루크, 조금 더 퍼져 있지만 여전히 꽤 명확합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불에 대해 이야기하는 두 구절은 심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성령을 얻거나 불을 얻습니다. 그것은 전환을 의미한다고 암시할 수도 있습니다. 동시에 세레 요한도 요엘 선지자가 말한 것처럼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인용한 성령이 부어지면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능력을 주실 성령이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그것들을 하나로 합칠 수 있습니까? 글썄, 누가는 성령의 역사의 한 측면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는 다른 측면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는 개종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것들을 2:38과 2:39에서 연관시킨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는 특히 증인의 힘과 예언적 권한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행전의 첫 설교에서 베드로가 그것을 해석한 방법입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취임 설교에서도 선교를 위한 권한 부여와 관련이 있습니다. 비록 그가 그것에 대해 다른 본문을 취하긴 하지만요. 그래서 그것은 루크가 강조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가 다른 것을 부인한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가 다른 어떤 것에 대해서도 결코 이야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서 사람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기쁨이 넘쳤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다양한 것들과 연관될 수 있지만 특히 선교를 위한 권한 부여와 연관될 수 있습니다. 이제 질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전환 시 이러한 일이 항상 발생합니까, 아니면 전환 후에 때때로 발생할 수 있습니까? 글썄요, 신학적으로 원칙적으로는 회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사역 전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바울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우리 모두는 회심할 때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중 일부는 다른 시기에 더 많은 것을 사용합니다.

내 생각에 세레 요한이 성령 세레에 관해 말할 때, 그는 다가올 시대에 성령께서 역사하실 모든 영역을 상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약의 여러 구절은

그것의 다양한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것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교회와 그것의 다른 측면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구절에 초점을 맞춘 다른 교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옳고 저 교회가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나는 회심을 위해서는 성령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또한 능력을 부여해 주는 영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는 우리가 의미론을 넘어서면 우리 모두가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는 우리가 단어에 관해 논쟁하는 데 시간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어에 대한 토론에는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 수 있지만 문제의 핵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모두는 개종할 때 어떤 방식으로든 영을 받고, 개종할 때 확실히 영에 접근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합니다.

저는 사실상 우리 모두가 개종 후에 성령을 경험할 수 있다는 데 동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사람들이 성령에 대해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을 봅니다. 사도행전 2장과 4절에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8절에서 그는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성령 충만한 그룹의 일부입니다. 글썄, 벌써 세 번째야. 바울은 9장 17절에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13장 9절 부근에 또 바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말하느니라. 아마도 이것에 관한 세부 사항 중 일부에 대해 논쟁하는 대신 우리 모두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역사를 위해 하나님께 더 많이 구하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지적했듯이, 만약 우리가 성령을 구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을 인식한다면, 우리가 이 모든 사명을 우리 스스로 완수할 수는 없지만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말을 들으실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가능합니다.

글썄요, 지난 세기 정도의 논쟁의 역사를 살펴보면 19세기 후반 급진적인 복음주의자들은 이 모든 것을 강조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세례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해당 용어나 명명법에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걱정하지 마세요.

그들은 좋은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위 선교 방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는 세계를 복음화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이를 위해서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적으로 언어를 주실 수 있는데 왜 2년 동안 언어를 배우나요? 그래서 그들은 선교 방언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기도하던 사람들 중 일부는 우리가 초기 오순절교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은 선교 방언을 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부어주심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으로 선교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하기 시작했고 매우 신났습니다.

그들은 외국으로 떠났고 그들의 선교적 언어를 시험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몇 가지 예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아무도 그들이 말하는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몹시 실망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사람들이 편도 티켓을 구매했기 때문입니다.

초기 오순절 교인들은 고린도전서 14장처럼 기도를 위한 방언을 유지했지만, 대부분은 선교 방언 개념을 버렸습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이 처음에 사도행전의 연관성에 대해 실제로 뭔가 진정한 것을 인식했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 하나님을 대신하여 말하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자의적인 표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들이 다른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보다 더 큰 표징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순절교와 다른 사람들은 때때로 논쟁을 벌입니다. 음, 방언이 이러한 권한 부여의 증거입니까? 그리고 고전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은

그렇다고 대답하고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개인에 대한 이러한 권한 부여의 증거인지 여부에 대한 질문을 지나치면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은 아니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는 방언 등이 언급되지 않았지만 어느 쪽이든 논쟁의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아요. 당신이 어떤 견해를 갖고 있든, 그것이 모든 개인에 대한 증거라고 말하든, 그리고 방금 그것이 모든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했으므로 그것이 모든 개인에게 수반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 말씀드리자면, 나는 이미 뜨거운 물에 빠져 있기 때문에, 반대편에서는 나 자신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돌아가서, 반대하시는 분들은 저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니까요. 제가 회심한 지 이틀 만에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나는 그것에 대해 들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에서 막 시작되었고 그 이후로 계속 해왔습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그것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제 아내는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이러한 능력의 증거입니다.

나는 그것이 반드시 그것을 받는 각 개인의 증거가 아니라 그 경험이 무엇에 관한 것인지에 대한 증거라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성령세례의 본질을 증거합니다. 이것은 타문화 사역을 위한 권한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문화적 장벽을 넘어야 한다고 그의 교회에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든 안 하든, 민족이나 인종을 넘어 화해할 수 없다면 다른 민족에게 다가가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대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음,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이 우리를 다음으로 안내하는 곳입니다.

오순절의 민족. 사도행전 2장 5절부터 13절까지는 천하 각 나라에서 온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의 아프리카 궁궐 관리처럼, 사도행전 28장에서 로마로 가는 선교와 마찬가지로, 1장 8절에서 이야기한 열국을 향한 선교를 예시합니다.

그리고 다른 곳과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도 우리는 또 다른 성경적 환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1절까지에 나라들의 목록이 나옵니다. 뭐, 이 말을 듣는 유대인들, 혹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첫 번째 나라들의 목록,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나라들의 목록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수학을 정말 잘한다면, 창세기 10장 바로 다음에 나오는 장이 창세기 11장이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언어를 흩어버리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영이 내려와 언어들을 흩어 버립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바벨에서처럼 민족들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영이 내려와 언어들을 흩어 그리스도의 몸에 새로운 문화 간 연합을 가져옵니다. 이제 제가 앞서 말했던 초기 오순절주의로 돌아가 보면, 그것은 일어나고 있던 다양한 부흥의 맥락에서 일어났습니다.

웨일즈 부흥은 극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한 인도에 있는 판디타 라마바이의 고아원은 극적인 정신의 분출이었습니다. 그것은 거의 동시에 세계 여러 곳에서 독립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부흥은 이 일이 있는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대략 동시에 서로 다른 그룹의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서로 다른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카톨릭 교회에서도 다음 세기에는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다양한 각도에서 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아주사 거리, 부흥이 아주사 거리로 퍼져나가는 곳이 바로 초기 오순절 부흥이 실제로 국제적으로 퍼진 곳입니다. 다양한 나라에서 사람들이 왔고, 많은 선교사들이 그곳으로 왔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는 다양한 인종 그룹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끄는 사람은 노예로 태어난 부모에게서 태어난 아프리카계 미국인 윌리엄 시모어(William Seymour)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있던 몇몇 사람들은 색선이 피로 씻겨졌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에서는 백인과 흑인 사이에 인종적 편견이 있었습니다.

Seymour는 이것을 얻었습니다. 방언에 대한 그의 특별한 이해 등은 특히 Charles Parham에게서 얻었습니다. Charles Parham은 그의 백인 멘토였지만 Parham은 Seymour와는 다른 종류의 교회 배경에서 왔습니다. 시모어는 그런 배경에서 왔고, 그들은 매우 큰 소리로 하나님께 그들의 흥분을 표현했습니다.

Parham은 매우 조용한 다른 종류의 교회 전통에서 왔습니다. 성령이 당신에게 임하시면 당신은 매우 조용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양방향으로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일어난 일은 Charles Parham이 Azusa Street 임무에 와서 그것을 인수하려고 시도했지만 Seymour가 그를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파햄은 나가서 아주사 거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불평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것에 대해 불평하는 방법 중 하나는 그것이 단지 암울한 캠프 모임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아주사 거리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비난하는 매우 인종차별적인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Seymour는 강조점을 바꿨습니다. 시모어는 여전히 방언이 가치 있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전에 믿었던 많은 것들을 여전히 믿었지만 이제는 오순절 이야기에 실제로 존재하는 또 다른 강조점인 성령과 민족적 화해를 추가했습니다.

왜 당신이 정말로 영을 갖고 있으면서 인종을 초월하여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로 영에 복종할 때, 영은 우리를 인종적 편견, 민족적 편견, 계급 편견, 카스트 편견을 넘어서게 해 주실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세상에 다가가는 사명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말하고 함께 일할 수 있도록 우리를 연합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2장 17절부터 21절까지 오순절 예언을 보게 됩니다.

글쎄요, 베드로는 그들이 말한 것과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여러분이 들은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예언적 능력에 관한 요엘의 예언을 성취합니다. 그는 요엘서를 인용했지만 유대인 해석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부 표현을 수정했습니다. 요점을 전달하기 위해 문구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조엘에서는 나중에 말합니다. 실제로 마지막 날이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베드로는 요엘의 문맥에서 요엘 3장 1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그 표현을 일부 수정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의 운명을 회복하실 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회복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중에 마지막 날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 주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글쎄, 그게 방금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너희 아들딸들은 예언할 것이다. 성별의 장벽도 뛰어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모두에게 예수님의 좋은 소식을 선포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노인과 청년, 나이의 장벽을 초월합니다. 그들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성서에서 꿈과 환상을 본 사람은 누구입니까? 특별히 선지자들입니다. 배타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특별히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또 다른 말을 덧붙이는데, 이는 너희 아들딸들이 남종과 여종에 대하여 예언할 것이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나는 내 영을 부어 주겠다. 그리고 그는 그 줄을 덧붙였는데, 그들은 예언할 것입니다.

요엘은 이미 예언을 언급했지만 베드로는 그것을 다시 언급합니다. 그는 당신이 요점을 놓치지 않았는지 확인하고 싶어합니다. 이 영은 고대 선지자들에게 능력을 주었던 바로 그 영입니다.

이제 그 동일한 영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남종과 여종에 대해 말할 때 여종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또 다른 곳은 누가복음 1장에서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잉태하게 하신 때입니다. 그녀의 내부. 그래서 사실 이번이 그녀의 두 번째 영 체험인데, 그녀는 주님의 여종이라고도 불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그녀는 오순절 날 교회의 모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방법으로 기꺼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계속해서 하늘과 땅의 이적에 관해 말한 요엘의 말을 인용하면서 기사라는 단어를 덧붙였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그는 땅에 있는 사람들을 강조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조엘이 말한 일이 모두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은 성취의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3절에서는 요엘의 말을 마치자마자, 죄송합니다. 22절에서는 요엘의 말을 마치자마자 나사렛 예수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서 능력과 기사와 표징을 여러분 가운데서 행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물론, 당신은 해가 어두워지는 등 예수님의 죽음의 징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요엘의 말을 인용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여호와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는 거기에서 인용문을 끊었지만 나중에 39절에서 요엘서에서 그 문장이 진행된 부분을 다시 선택하기 때문에 요엘에 대한 생각을 끝내지 않았습니다. 요엘은 이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든 사람을 부르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메시지를 마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들딸들, 모든 면데에 있는 자들,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아. 그래서 그는 여전히 조엘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는 Midrash와 함께 훌륭한 유대인 통역사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인용한 마지막 줄을 선택하여 설명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금은 구원의 시대입니다. 지금은 영혼이 쏟아지는 시대이다.

지금은 예언적 권한 부여의 시대입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 시대이다. 이것은 마지막 날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마지막 날이었다면 지금은 더 이른 날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때 영을 부어 주시고 나중에 다시 영을 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글썄요, 우리는 마지막 때의 그리스도를 위한 선지자로서 권능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토라를 의미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이는 또한 예언적인 메시지를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도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전하고 있으니 곧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사도행전에는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도, 사실 그것이 누가복음이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면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방법. 그리고 모든 신자들은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전하실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글썄요, 어쨌든, 모든 육체에 대해 말하는 것은 아마도 요엘서의 인용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마도 베드로는 이방인에 대해 생각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조차 깨닫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설교를 이제 그는 계속해서 이 구절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는 요엘서 2장 32절에서 요엘의 인용문을 떼어낸 다음, 설교 마지막 부분인 39절에서 요엘서 2장 32절의 나머지 부분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21절과 39절 사이에서 그는 방금 21절에서 인용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구원을 불러일으키는 여호와와 이름은 무엇입니까? 글썄요, 좋은 유대어 미드라쉬 형식으로 그는 공통 핵심 단어에 기초하여 일부 텍스트를 함께 연결합니다. 후대의 랍비들은 그것을 게셀 하샤바(Gezer HaShavah)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공통 키워드를 기반으로 이러한 텍스트를 연결합니다.

그는 시편의 두 본문을 연결합니다. 주님은 아버지 우편에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높아지신 것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시편 16편에서는 부활하신 분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고 말하고, 시편 110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 우편에 계신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분의 이름은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신성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수가 신성하고, 예수가 야훼라는 것을 이미 인정한 최초의 기독교 설교였습니다.

이제 여기 베드로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왔고 베드로는 2.37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이제 이것은 유대인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급진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기적인 의식 삽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이 일회적인 종류의 전환이었을 때는 상당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회개는 구약의 선지자들의 언어를 불러일으킵니다. 때때로 사람들은 "이건 단지 마음이 바뀌었을 뿐이고, 이것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이 바뀌었을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이상이었습니다.

한 마디도 받아들이지 않고 단지 그것을 구성 요소들로 나누어 그것이 바로 그 뜻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단어는 그것이 사용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실제로 신약에서 사용된 방식을 연상시킵니다. 특히 구약의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에 관해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의 언어를 연상시킵니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돌아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세례를 받으라고 부를 때,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들은 물에 잠겼습니다. 이제 그것은 유대 문헌에만 보고된 것이 아닙니다.

또한 이 사실을 이 시대부터 알고 있던 일부 이방인들이 전하는 바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물 세례를 받기를 기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것은

별로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의식 예화를 했기 때문에 성전 곳곳에 침수 웅덩이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들은 보통 알몸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한 곳으로 가고 여자들은 다른 곳으로 가고 사람들은 물에 몸을 담그고 밖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성전산에는 물이 많이 있었습니다.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세례를 받으라고 부르실 때, 이것은 단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정기적으로 정결케 하는 의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회개, 곧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과 결합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맡기는 특별한 종류의 전환입니다. 그는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도록 초대하면서 그들을 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이방인과 같은 조건으로 그들을 하나님께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즉, 우리 중 누구도 단순히 조상에만 의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는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것이 아니지만, 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부모의 신앙에만 의지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조부모님의 신앙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날과 마찬가지로 그들은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선택된 사람들에 속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할 때, 이 회개가 표현되는 방식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묻는 질문은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0장의 다른 곳에서도 자주 묻는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의 부자 관원을 기억하십시오. 그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또한 12:33, 특히 14:33에서 제자들에게 왕국의 유익을 위해 여러분의 자원을 버리는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다면, 당신이 가진 모든 것,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고 싶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에게 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자신의 삶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그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야 하느냐고 물으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간수는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말합니다. 각각의 경우에 대답은 다소 다르지만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존재와 소유를 예수님께 걸게 되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무엇이든 갖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의 형벌에서만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반역에서 구해 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자신과의 관계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에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분을 섬기고 싶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그를 기쁘게 하고 싶습니다. 자, 다시 말하지만, 원칙적으로 우리는 회심할 때 죄에 대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 모든 것을 한꺼번에 경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성령과의 관계가 성장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이곳 커뮤니티가 경험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명확하게 표현되었습니다.

2:41에는 효과적인 전도가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2장 47절의 공동체 생활 방식을 통해 효과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서로를 대하는 방식을 통해 지역사회의 변화를 봅니다. 그들은 함께 예배합니다.

그들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들은 집집마다 함께 식사합니다. 친교입니다.

그것은 언약 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그리스 이야기에서는 반대편의 두 전사가 어떻게 서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서로 싸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사람의 아버지가 몇 년 전 연회에서 이 사람의 아버지를 초대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글썄, 그것은 그들의 조상 사이에, 따라서 그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언약을 나누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우리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함께 식사하실 때 그토록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신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언약의 교제의 표시입니다. 때로는 다른 문화에서 다른 방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지만 함께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44절과 45절의 핵심에서 우리는 이것이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4장에서 성령이 부어질 때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부어짐의 결과 중 하나는 소유를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244장과 45장. 그들은 서로를 위해 기꺼이 희생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즉시 모든 물건을 팔고 거리로 나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는 4장에서 명확히 설명된 바와 같이 누구든지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가지고 있던 것을 팔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유물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은 소유물보다 사람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자원이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가치를 잃을 수 있는 것들을 얻는 대신 우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는 것은 어떨까요? 왕국을 위한 우리의 자원.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좀 더 자기중심적인 방식으로 영의 부어짐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지만, 사도행전의 영의 부어짐은 특히 공동체에 영이 부어졌을 때 그룹으로서 신자들에게 부어졌습니다. , 그것은 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그들이 이것을 서로 사랑으로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성령의 부어짐을 표현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때로는 한 교회가 한 교회를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다른 교회를 강조하기도 합니다. 성령의 부으심에 관해 성경이 말하는 모든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의 목적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제자도가 뒤따르는 회심을 봅니다. 사람들은 기도와 성경 공부에 참여했습니다.

본문에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지만, 우리는 성경 공부를 통해 그 가르침을 가장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관해 이야기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전부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열왕기상 18장에서 오바다는 선지자 백 명을 굴에 숨겼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의 예언을 기록하지 않았습니. 신약의 가정교회에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은 우리를 위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나 말씀하신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은 우리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모든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씩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아니지만 정경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모든 것을 판단하는 척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시대를 거쳐 시험을 받았고, 예레미야 시대의 많은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있었지만 대부분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예레미야의 예언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험되었습니다.

그의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전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연구할 수 있고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궤도에 올려 놓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기도하고 성경 공부를 하거나 기도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성경을 공부함으로써 사도의 가르침을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에 언급된 표적들로 계속해서 증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에서 그 예를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하러 가는 중이었고 하나님은 표징을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극적인 징후만은 아니다. 내 말은, 당신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순절 날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해 왔지만 여러분은 성령의 은사뿐만 아니라 성령의 열매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소유보다 서로를 더 귀히 여기기 때문에 소유를 나누었고 교회는 계속 성장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열매인 우리의 삶은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문화적 장벽을 넘어 그분을 예배하고, 그리스도와 서로에게 헌신된 예배자들의 새로운 다문화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이것은 사도행전을 가르칠 때 Dr. Craig Keener입니다. 이것은 7회기, 사도행전 1장과 2장입니다.